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어~ 저기 만화 주인공 우리 의사 선생님이네”

화순 전남대병원 캐리커처 전시회



병원 로고를 한 손에 들고 밝게 웃고 있는 김영진 원장(사진). '넘버원'을 의치고 있는 강호철 진료지원실장. 입원 중이지만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소아환자.

화순 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선 8일부터 12일까지 이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만날 수 있다. '얼굴사람'의 캐리커처 작가 김선희·이선희씨는 이번 전시를 위해 병원 의사들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그렸다. 전시에 소개되는 인물은 총 30명. 작가들은 작업을 위해 미리 의사들의 모습을 연구한 다음 인물의 특징을 잡아냈다.

작가 김선희씨는 “환자들이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는 의사들의 소망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었다”며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혁균 교수 중 인민의원 강연

정성택 교수 美 학술대회 참가



오혁균 교수 정성택 교수

전남대 병원 구강 약 안면의 과 오혁균 교수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남대 병원의 해외 자매병원인 중국 쎄첸시 인민의원(Shenzhen People's Hospital) 초청으로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과 치조골 신장술' 주제 특별 강연을 갖는다. 한편 정형외과 정성택 교수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제7차 국제시메이션 학술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서민정기자 viola@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스노보드' 부상 대처법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스노보드'가 제철을 맞았다. 따뜻한 겨울날씨가 끝나고 최근 적절할 온도와 눈으로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운 날씨 속에는 근육·관절이 굳어 작은 충돌에도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대한스포츠과학회에 따르면 스키를 타다 흔하게 다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 무릎, 종아리 부위, 빗장뼈 및 어깨 순. 스키·보드를 부상 없이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과 후 부상을 입었다더라도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선부른 설원질주 '골병' 부른다

근육·관절 굳어 작은 충돌에도 큰 부상 10분이상 스트레칭...잘 넘어져야 안다쳐

과감히 버리고 손을 스키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 가로 방향으로 넘어진다. 2차 부상을 막아라=넘어진 후에는 다른 스키어들도 부딪혀 2차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머리·척추의 손상이 의심스러울 경우 전문 구급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무리한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지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머리가 넘어지거나 스키를 들이쳐서 손상을 일으키거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뻘뻘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인대 손상이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바인딩을 점검하라>=바인딩(Binding)은 스키 장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고속으로 질주하는 '플레이트'(Plate)와 '부츠'를 이어주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바인딩은 평소 부츠를 강하게 고정하다가 넘어지면 쉽게 풀려 스키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체중에 비해 바인딩이 너무 강하게 고정돼 있으면 넘어질 때 스키 판에서 신발이 분리돼 지 넘어 부상이 심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몸무게에 따라 권장하는 숫자에서 실례에 따라 ±1 정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서민정기자 viola@

암 치료 기간·비용 얼마나 될까? 간암 19.1일 588만원 위암 14.9일 438만원

각종 암에 걸린 환자의 치료비는 얼마나 들고 수술을 하게 되면 며칠이나 입원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발을 걸여붙이고 나섰다.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간암·위암·유방암·폐암·갑상선암·대장암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많이 발생하는 6대 암질환 진료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정보를 얻으려면 홈페이지의 '건강정보' 코너에 들어가 '진료정보 안내'에 이어 '주요 암'을 클릭하면 된다.

심평원은 다만 이 정보에는 식대와 선택진료료(특진료) 등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대상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는 제외돼 있어, 실제 환자별 질병상태나 치료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절 절을 당부했다.

이 진료정보에 따르면 2006년 6~9월 현재 위암 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위 부분절제술을 받게 되면, 평균 14.9일을 입원해야 한다. 진료건당 진료비는 평균 438만1천원(본인 부담금 45만3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암 환자의 경우에는 역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간 부분절제술을 하게 되면, 평균 19.1일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 진료건당 진료비는 평균 588만4천원(본인 부담금 61만6천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나머지 암질환을 포함한 진료정보 제공범위를 계속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화안내 m-o-v-i-e-s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Megabox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엔터 시네마 1관 박물관이 살아있다

울드미디어 올드미디어리뷰

컬롬버스 시네마 하남점

인기가 간다 영화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금부동산컨설팅 021-894-1000

금천공인중개사 011-9600-4563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법원경매 222-8446